

## 第2次 亞細亞太平洋地域 圖書館學大會 報告

玄 圭 燮  
國立中央圖書館電算室長

### 1. 背景과 經緯

아스팍社會文化센터가 發議한 東南아세아 지역의 圖書館學發展이란 슬로우건이 自由中國에 의하여 受容된 것은 1982年 5月이었다. 中國에서는 文敎部를 통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이 主管하는 學術會議를 개최코자 東南아세아地域의 各국으로 하여금 대표 파견을 의뢰하고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學術會議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입안하였던 것이다. 同年 11月에는 各국의 대표자 선정이 外무부를 통하여 各국 도서관계에 전달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한국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여 대표자 선정을 시행하였다. 이때 선정된 한국대표는 리재철 교수(연세대학교)를 수석대표로 하여 분야별 전공학자 및 연구자 4명을 포함, 5명의 대표가 결정되었다. 이 회의의 公式名稱은 The First Asian-Pacific Conference on Library Science(亞太地區第一屆圖書館學研討會)였으며, 1983年 3月 13일부터 19日까지 臺灣市에서 自由中國의 國立中央圖書館이 組織委員會가 되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 會議에 참석한 各국 대표는 미국을 위시하여 日本, 필리핀, 불란서, 印度, 뉴질랜드, 호주 등 14個國 146

名(自由中國 代表 포함)이었다. 토의된 주제는 圖書館自動化와 情報資源分擔利用(Library automation and resources sharing)이었다. 실제로는 5個 分野로 主題를 나누어 46篇의 論文이 提出되었다.

第一次會議의 議決事項 중에는 이번 회의가 東南아세아지역의 도서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회의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次期會議地의 決定없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아스팍社會文化센터는 次期開催地를 韓國을 잠정적 예정지로 삼고 1983년 하반기에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엔 國立中央圖書館에 自由中國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국 개최시에 組織委員會가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왔다. 이 提議는 1984年 5月中에 한국에서 第二次會議를 개최할 것과 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비용은 아스팍이 제공하는 일정금액 이외의 모든 경비를 도서관측에서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國立中央圖書館側에서는 아스팍이 제공하는 일정금액 이외의 제반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충당하고자 모든 計劃을 樹立하였으나, 1984年度 國際協力關係豫算에서는 이 부분의 항목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臺灣市에

서 개최되었던 第一次會議과 같은 規模나 內容의 회의는 개최할 수 없다는 現實의인 판단이 내려졌다.

아스팍社會文化센터側에서는 現實의인 事情을 감안하여 이 會議을 축소 운영키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예산범위도 크게 축소하고 참가국은 韓國, 日本으로 국한하여 15名 程度의 초청자로 한정하되, 여기에 自意로 참석하는 參觀者(옵씨버)를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토의될 主題도 한 가지로 국한하고, 발표자 선정도 해당 주제분야의 專攻學者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축소된 會議開催案은 최초엔 국립중앙도서관에 口頭로 提議되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축소된 회의마저도 수락할 수 없을만큼 예산상의 경직성이 있었다. 아스팍에서는 이 제의를 韓國圖書館協會側에 구두로 제의하였다. 그것 역시 예산상의 이유로 수락되지 않았다. 결국 1984年 아스팍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측의 협력자를 찾지 못하고 말았다. 아스팍은 최종적으로 도서관측의 공동 주최자 없이 單獨主權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이 案은 한국의 圖書館界가 아스팍의 提議를 수용할 수 없다는 問題의 次元을 넘어 국제적으로 도서관의 능력을 평가받는다는 대외적인 問題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反對받아 할 발상이었다.

이러한 복잡한 경과를 거쳐 1984년도 다저물어가는 12月 中旬에 가서야 국립중앙도서관측에서 예산상의 부담만 없다면 1985年度에 韓國會議開催를 眞備할 수 있다는 감정적인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일단 公式의인 要請이 있는 後에 再論키로 하였다. 아스팍에서는 1985年 1月 8日字로 外務部를 통하여 文敎部로 公文을 발송하고, 문교부에서는 1985年 1月 14日字로 국

립중앙도서관에 이 공문을 이첩하였다. 이 공문의 내용은 한국대표단을 조속한 時日內에 편성하여 보고할 것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아스팍社會文化센터와 共同 主權者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고할 것으로 되어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측은 電算室이 主軸이 되어 이 제의를 받아들여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대표자 구성을 시작하였다. 당시에 제시된 議題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東亞細亞地域出版物에 대한 目錄規則(Cataloging Rules for East-Asian Publication) 둘째는 漢字의 自動化處理(Development in automated system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Character Codes), 셋째는 東亞細亞自動化目錄法(Establishment of East-Asian MARC system)이었다. 이들을 총괄하는 大主題는 東亞細亞地域의 書誌情報交流를 위한 協力(Co-operation in East-Asian Bibliographic Information Interchange)으로서 주로 목록의 컴퓨터技法에 의한 交換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代表人選原則은 目錄과 MARC 그리고 漢字의 컴퓨터化에 각각 2人씩 선정하여 6名으로 구성하고, 수석대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맡아 行事全般에 걸친 책임과 지도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1985年 1月 31日 限定時間으로 되어 있는 人選作業은 31日에 가서야 겨우 일단락을 짓게 되어, 급히 문교부로 회신되었다. 당시의 人選原則은 각 主題分野에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공헌을 한 學者 또는 컴퓨터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研究者로서 最近 2年間에 해당된 분야의 論文이 있을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目錄과 MARC는 人選의 어려움이 없었으나, 漢字의 컴퓨터 처리 분야는 人選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결국 1月 31日字로 일단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그후 또 다시 수정통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종 확정된 대표명단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目錄規則의 主題分野〉

이재철 교수(연세대)

정필모 교수(중앙대)

한순정 교수(숙명여대)

〈自動化目錄〉

박계홍 선생(한국과학원)

구자영 교수(이화여대)

현규섭 선생(국립중앙도서관)

〈漢字의 컴퓨터처리〉

이기식 선생(한국과학원)

이상의 경과과정으로 알 수 있듯이, 이번 會議의 開催決定이 불과 5個月을 앞두고 통보되었던 것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도 공동주최의 수락 여부를 결정짓는 충분한 시간조차 없었다.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작용력을 증진시키는 길이며, 대내적으로는 인접 국가의 圖書館學狀況을 파악하며, 참석하게 될 外國의 學者와 直接對面을 통하여 學識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오로지 理想의 實現 하나로서 赤手空拳 肉彈으로서 이 회의를 실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주변에 많은 不可論이 있었으나, 熱情的인 圖書館人의 精神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스콧의 단독 개최 가능성이 이들 圖書館人들의 背水陣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2. 準備事項

代表選定을 마친후 즉시 大會組織委員會를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조직위원회는 代表者會議과 執行委員會 두 조직을 두되, 時間的인 여유가 없으며, 효율적인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전원을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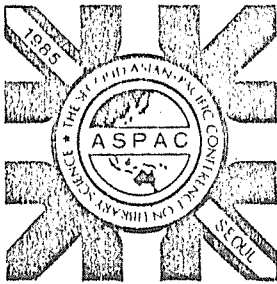
립중앙도서관 직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大會組織委員長에는 權肅正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추대되고, 조직위원장의 명령으로 집행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집행위원회 총인원은 40명으로서 각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과 업무내용을 확정하였다. 3월 10일에 결성된 집행위원회는 곧바로 집무를 시작하였다. 최초로 한국 대표자 회의를 3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실에서 개최하였다. 사실은 이 회의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중요하고도 결정권을 갖는 회의였다. 학술회의가 전략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닐진데 대표자회의에서 決定된 學術的 目的이 설정되면 집행위원회의 사무적 절차만이 남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 논문의 작성방침, 연구영역의 설정 등 의견조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이 회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부 不可論이 또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미 自由中國의 代表 5名과 참관자 5명 포함 10명의 명단이 통보되어 있었으며, 호주와 미국의 참관자 명단도 접수되어 있었다. 출발부터 참담하기만한 분위기 속에서 집행위원회는 다가오는 會議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財源은 아스콧이 전담키로 하였으나, 動員되는 實務職員의 식비나 초청장 또는 관계공문의 발송비 등까지 포함될 수 없었다. 이러한 諸雜費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담할 수 밖에는 없었으나, 問題는 場外經費였다. 아스콧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리셉션과 최후에 열리는 Farewell party는 준비되었으나, 중간의 제경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이러한 場外經費는 文教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文教部도 예산이 항목결정된것에 한하

여 설정되는 것인만큼 국립중앙도서관의 요구에 쉽사리 응할수는 없었다. 財政問題는 會議開催直前에야 해결되었으나, 그간의 계획은 언제나 未定인 상태로 운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國際會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쇄물만도 무려 24種類에 달하였으며 이들을 도안하고 인쇄하는데에도 많은 人力과 경비가 소요되었다.

圖表(1)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번 會議의 썬블마크를 정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관내 직원으로 하여금 公募하기로 하였다. 무상으로 제의하였던 이 公募은 무려 18점이나 응모되었고, 이중 하나를 아스파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당선된 도안은 圖表 1 과 같다. 모든 공문과 포스터, 현수막, 초대장에 사용키로 하고, 가급적이면 장래 계속되는 회의에도 사용되도록 하였다.

집행위원회의 각 분과는 이번 會議의 成敗는 오로지 誠實함에 있음을 자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制約된 예산을 정신과 육체로 超克할 각오로 준비에 임하였다. 촉박한 時間이긴 하였으나, 會議에 發表될 論文을 더욱 널리 모으고(그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만), 후일에 발간될 議事錄(Proceeding)에 게재될 論文을 모집하기로 대표자회의에서 決定되어 이를 각 대학과

도서관에 공지시켰다. 특히 각 대학의 도서관과 교수 전원(120名)에게 통지하였다. 4月 22日字로 발송된 이 통지문은 적어도 5個月前에 발송되어야 한다는 국제회의 관례에 너무도 어긋나는 것이었으나, 이 회의의 착수가 1月 하순이었으며, 준비기간이 4個月도 채 못되었던 까닭에 의사록에 수록된 논문의 시한을 5月 31日까지로 연장하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한편 초청장과 포스터를 제작, 발송준비를 서두르며 外國의 회의참석자는 아스파측에서 점검하여 入國日字와 시간, 항공기편 등을 점검하였다. 주로 의사진행분과와 의전분과에서 시행한 초청장 등 발송 건수는 2,086件이었다.

外國의 參加者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제 1 회 회의에 참석하였던 각국의 대표를 參觀者로 초청하기로 決定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이들의 여비는 부담하지 못하고 숙식만을 제공키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참가국과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발표논문도 多樣해졌다. 국별 대표자 수는 5月 16日 즉, 개최전 5日前에야 확정이 되었다. 그간에 명찰과 명패, 좌석배치, 발표논문의 복제, 외국대표의 출영와 안내, 숙식의 예약 등이 모두 미정인채로 남겨진 상태에서 불안한 준비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대표단의 구성에 異議가 제기되고, 회의 개최 바로 직전에 불참통고를 받는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會議는 國際的으로 한국의 圖書館界를 드러내는 일종의 전시적 효과가 곁들여 있었다. 작은 利害關係를 넘어 적어도 한국의 입장이라는 大我의 정신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開會式에는 여실히 露程되

었다. 최초엔 초청자 600여명중 150여명으로 예정하고, 최대 200석을 회의장에 준비하였으나, 방명부에 기록된 참석자만도 272名이나 되어 의사진행의 준비요원을 당황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감격스런 개회식은 전일에 있었던 모든 不安과 좌절을 말끔히 일소시켰던 堂堂한 出發이었다. 外國代表者의 명단은 개회식 전일인 19일에 등록을 마침으로서 확정되었으며, 10個國 35名으로 집계되었다(圖表 2 참조). 發表論文은 총 22件이었으나, 이 중 두 편은 논문만 제출되고 발표자가 사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

圖表 (2) 대표자 수 및 발표논문 제출 건수

국 별	대표자수	발표논문 제출	비 고
濠州	1	1	keynote speech
카나다	2	1	
自由中國	9	6	
홍콩	1	0	
日本	4	2	1명 사고 불참 1명 사고 불참
말레이아	1	1	
싱가폴	1	1	
泰國	2	1	
美國	6	4	
韓國	8	5	
10 個國	35	22	

5月 18일부터 事務局이 설치되었다. 중인원 45名이 제각기 부서를 정하여 위치하고, 특히 儀典分科는 同德女大와 漢城大學 圖書館學科生 중 日本語나 英語의 구사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空港과 회의장 입구에 배치시키며 등록절차와 會議場案內에 萬全을 기하였다. 公報分科는 회의진행 상황을 알리는 Newsletter를 刊行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취소되었으나,

대외적인 홍보와 진행상황을 대표에게 알리는 사진제작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특히 議事進行分科는 회의장에 준비 발표논문의 복제, 회의진행에 따른 시간의 조정, 방문예정 도서관의 연락 등 잡다한 일에 동분서주하였다. 特別行事分科는 이번 집행위원회의 독특한 조직이었는데 부과된 임무는 각 대학이나 도서관에 특별강연을 개최하도록 촉진시키는 일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원래 10명 정도의 제외국 한국인(현재 도서관에 봉직하거나 도서관학 교수인분)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事情이 여의치 못해 이 중 2名만 참석하였다. 「하바드 연경도서관」에 계시는 백린 선생님과 캐나다 메트로 公共圖書館에 계신 유흥승 선생님이었다. 우선 이 두분을 중심으로 丸山昭次郎(日本 國會圖書館), 田邊廣(日本 쓰르미大學 教授), 王振鵠(中國 國生圖書館長), Marly Sharrow(카나다토론토大學 教授)등 國際圖書館界 重鎮을 한국의 도서관에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자 활동하는 조직이었다. 이 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제외국 한국인의 특강만을 대성황리에 지방 곳곳에서 개최하였다. 미리 이곳에서 結果를 밝혀둔다.

5月 19日에는 아스파 社會文化센터의 鄭度淳 總長과 國立中央圖書館의 權肅正 館長이 共同으로 주최하는 Pre-reception 회의장인 프레지덴트 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열렸다. 초청 인원 150명 중에서 97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각각의 대표와 한국의 도서관인이 자연스럽게 대면하는 첫번째 모임이었던 것이다.

### 3. 會議進行

1985年 5月 20日 10時에 예정되었던 第

二次亞細亞太平洋地域 圖書館學大會가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開會式이 열렸다. 초청되었던 많은 國內人士의 참석과 뜻밖에도 圖書館人의 깊은 관심과 고군분투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협력의 의지로서 참석하여 준 내빈들에 의하여 식장내의 분위기는 한결 다채롭고 즐거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못내 아쉬웠던 것은 이 행사의 수준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아스팍사회문화센터의 정도 이상이 되지 못했던 점이었다. 특히 지난번 第一回會議時의 규모나 수준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自由中國代表들의 실망어린 표정은 주관하는 모든 멤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한국대표단 중에서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대표에 대한 외국대표들의 안부 문의에 아무런 답변을 못하는 집행위원들의 고통은 그토록 준비하였던 모든 계획을 이제부터 수정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암울하기만 하였다. 梨花女大圖書館의 홍순영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은 아스팍사회문화센터의 정도순 총장님이 국내외 대표와 내빈의 참여를 치하하였고, 이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권숙정 관장님의 환영사가 있었다. 다음에 멀리 캐나다 토론토大學 圖書館 情報學科 教授이자 동대학도서관 관장인 Marilyn Sharrow여사의 主題講演이 진행되었다. 예정 시간대로 개회식은 한 시간만에 종료되었다.

곧이어 大會長의 선출이 아스팍총장의 임시의장 자격으로 진행되었다. 中國의 王振鵠 代表의 提議와 美國의 Calvin James Boyer 대표의 찬동으로 한국 대표단의 수석 대표이자 국립중앙도서관장인 權肅正 代表를 大會長으로 추대하고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권숙정 관장은 朴啓弘 代表

(한국과학원 도서실장)를 交替會長으로 지명하여 各 分科(Session)別 의장(Chair person)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분과 의장은 한 사람의 간사(Rapporteurs)를 둘 수 있고, 이를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분과별 의장의 선출과 간사의 지명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제 1 분과>

의장 : Mr. Ke-hong Park(Korea)  
간사 : Prof. Ja-young Koo(Korea)

<제 2 분과>

의장 : Dr. Chen-ku Wang  
교체 : Prof. Chien-chang Lan  
간사 : Mr. Calvin James Boyer

<제 3 분과>

의장 : Prof. Yoshishige Tsuda  
간사 : Prof. Chen-chau Yang

뒤에 기록되었지만 이들 의장과 간사는 이번 대회의 決議文이 있을 때, 이를 초안하는 위원이 되며, 大會運營에 필요한 協議事項을 논의 결정한다. 사무장으로서 이상과 같은 임원의 선출은 예정된 시간내에 무사히 완료되어 드디어 첫 번째 논문발표가 예정시간대로 개시되었다. 각 분과별 발표자와 논문 제목은 圖表(3)과 같다.

회의는 계획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미 앞에 보고된 바와 같이 미국의 Prof. N.L.Chou와 한국의 대표가 사고로 불참한 것이 회의 진행에 차질을 가져왔다. 21日(두번째 날)에는 오후 3시까지 회의를 종료하고, 國立博物館과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을 견학하였다. 22日(세번째 날)에 모든 의사일을 끝내고 폐회식을 가졌다. 이때에 大會의 Resolution과 Recommendation이 심의되고 전체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의가 있었다. 의결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圖表(3)

會議日程表

SESSION I : Cataloging Rules for East-Asian Publications			
NO.	NAME	COUNTRY	TOPIC
1	Shin-Hsion Huang	R.O.C.	The Feasibility of East Asian Library Coope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C.J.K. Materials Cataloging
2	Thong-Ngee Koh	Singapore	East-Asian Resources in Singapore Library
3	Sally C. Tseng and Calvin J. Boyer	U.S.A.	East-West Library Information Exchange in the computer age
4	Pil-Mo Zung	Korea	On the format of cataloging entry
5	Chien-Chang Lan and Ho-Sheng Lu	R.O.C.	The preparation of the concise Chinese Cataloging Rules: principle and applications
	Songvit Kaeosri and Wilawan Sapphansaen	Thailand	Computerized bibliographic control in Thailand
7	Soon-Chung Hahn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ersonal name and thier treatment as headings in library catalogs
SESSION II : Development in automated systems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character codes			
NO.	NAME	COUNTRY	TOPIC
1	Tanabe Hiroshi	Japan	Chinese character and bibliographic information interchange
2	Jack Kai-tung Huang	R.O.C.	A Diagonal Symbol Encoding System (DSES): A simplified 3-corner coding method and it's feasibility for CJK adoption
3	Smith-Yoshimura Karen and Alan Tucker	U.S.A.	RLIN East-Asian character code and the RLIN CJK thesaurus
4	Chung-tao Chang	R.O.C.	A multi-lingual coding system based on CCCII
5	Ki-Sik Lee	Korea	The present status of the standard Chinese character code system in Korea
6	Chen-Chau Yang	R.O.C.	Application and design consideration CJK for information interchange code
SESSION III : Establishment of East-Asian MARC System			
NO.	NAME	COUNTRY	TOPIC
1	Ke-Hong Park	Korea	Computer application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and the need of East-American MARC System
2	Maruyama Shojiro	Japan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of bibliographic control in Japan

3	Nancy Ou-lan (Hu) Chou	R.O.C.	A Chinese MARC-Oriented study on the establishment feasibility of the East-Asian MARC system
4	Nelson Chou	U.S.A.	On establishing an automated Chinese information dissemination network in the State of New Jersey: An informative account
5	Khoo Siew Mun	Malaysia	Computerization and shared cataloguing in academic libraries: A Malaysian experience
6	Sing-Wu Wang	Australia	Automation of East-Asian catalogue records in Australian libraries
7	Margaret C. Fung	U.S.A.	The challenges of library automation
8	Ja-Young Koo	Korea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ibliographic records in Korea

- 次期大會는 日本에서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 아스파사회문화센터는 계속하여 본 대회의 재정지원을 시행하여 주기 바란다.
- 본대회에서 논의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계속하여 연구 검토하여 위하여 小委員會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이 소위원회는 각국에서 선출하는 代表委員 2名으로 구성한다).
- 중국의 CCCII(중국 한자 코드 시스템)를 연구하여 확장시킴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한·중·일 3국에서 表記文字로서 로마안 알파벳을 사용하여 각 書錄間에 統一化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이 연구역시 小委員會에서 검토한다.
- 한·중·일 3국의 MARC 테이프 교환을 시도한다. 그 가능성과 실진저의 절차 역시 小委員會에서 협의한다.

폐회식이 끝난후 23일(네번째 날) 에는 한국 민속촌의 관광이 있었다. 대부분의 外國代表는 이들 각종 시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에 대한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회의에서 예상 밖으로 국내 도서관인의 관심이 깊었다. 연일 참가자의 수도 의사분과위원회에서 준비한 복사물을 언젠가 초과 하였으며, 컴퓨터 분야의 인사와 학자도 다수 참가하였다. 참가자의 총 수는 744명이었으며 일별 통계를 보면 圖表(4)와 같다.

다만 보도관계는 모처럼 개최되는 圖書館學의 國際會議로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반영되어 한반도 본격적인 사회적 중요문제로서 취급되지 아니하였다.

圖表(4) 일별 참가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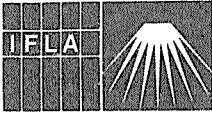
일	의 사 일 정	인 원	비 고
19일	Pre-Reception	97명	초청자 한정
20일	개 회 식	272명	귀빈 제외
20일	제 1 분 과	145명	
21일	제 2 분 과	185명	
22일	제 3 분 과	132명	
	및 폐 회 식		



## 4. 討議內容

세 개의 主題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제시된 問題點은 漢字의 컴퓨터 처리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에 미국의 RLIN(Research Library Information Network)가 중심이 되어 개발된 CJK System은 그간에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개발한 韓字씨스템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주로 中國系의 學者에 의하여 개발된 것 이라고 하더라도 동양 三國과의 융합문제는 그대로 남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1980년에 자신들이 개발한 CCC II(Chinese Character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漢字의 大統을 이어 나가는 국가로서 共同利用의 가능성을 역설한다. 한국은 KSC-5619의 표준 코드를 제시하고자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 보고되었다. 현재 최대 5,076자(국립중앙도서관에 사용되고 있는 것임)까지 사용되고 이 씨스템을 소개하고 漢字文化圈의 여러 국가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日本은 JISC-6226코드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NDL-70코드가 있다. NDL-70은 표준 코드인 JISC-6226보다 더 많은 換자를 정리하고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바로 MARC와 결부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RLIN은 CJK System에 CCCII체계를 도입하고, 일본과 한국의 문자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각종 보고와 提議가 관계분야의 깊은 관심을 모으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CCCII에 대한 각국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의 개발에 협력한다는 결의사항(Resolution)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解決이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어렵다는 관측이 아직도 지배적이었다.

다음에는 MARC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한국과 중국측에서 MARC를 한·중·일 3국간에 공동 이용할 수 있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먼저 각국이 사용하는 포맷의 統一化를 제의하였다.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은 東洋圈의 出版物에 쉽게 적용하는 포맷의 制定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전문적이며, 실천적인 次元에서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설혹 MARC 테이프의 文換이 이루어지더라도 漢字圈 文獻의 컴퓨터 처리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포맷으로 처리하는 문제 즉 自國의 獨特한 換자는 入力狀況을 표시하는 문제 등이 場外로 옮겨져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구체적인 결과를 얻었지는 못하였다. 우선 어느 代表이건 MARC의 교환문제나 공동 사용문제를 책임있게 보장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그 可能性을 위하여 앞으로 委員會를 구성하자는데 합의하고, 이미 언급한 각국 2人의 代表로 구성하고 會議에서 연구하자는데 모두 동찬하였다. 세번째 主題인 目錄의 問題는 뚜렷한 方向이 없이 각국 대표의 연구 결과가 제시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 중에서 中國 代表의 간략목록법에 대한 의견이 관심을 모았으나, 아직은 含意點이 없이 평행적인 의견만이 교환되었다 하겠다. 目錄規則을 간략한 방식으로 재편할 때에는 必須要素의 定義와 재량사항의 범위 규정등이 확립되고, 이들이 研究를 통한 規則으로의 接近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중·일 3국에서 공통된 부분을 추출하고 이를 정밀이 분석하여 必須要素만이라도 확연히 정의한다면 앞으로 상호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52nd General Conference-Tokyo 1986

## 第52回 IFLA 東京大会 198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52nd General Conference, 24-29 August 1986, Tokyo, Japan.

「IFLA 東京大会」가 아래 내용과 같이 1986년 8월 24일~29일까지 東京에서 개최됩니다. 일본 도서관협회에서는 한국에서 많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며, 행사내용을 “도협회보”에 게재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내년 IFLA 대회에 참석예정인 회원은 “Conference Request Card”를 복사한 후 기입하여 1985년 12월 20일까지 도협 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NVITATION TO THE TOKYO CONFERENCE

With the 21st century looming ahead, the contemporary world of librarianship is coping with two separate, major problems. The first is how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to the various aspects of library services and operations. The second is how to improve libraries in developing countries hindered by adverse, socioeconomic conditions. In view of these and many other problems that must be dealt with in the future, the theme of the 52nd IFLA Annual Conference will be “New Horizons of Librarianship Towards the 21st Century.”

Japan was chosen from the Asian countries to host the conference in 1986. The Japan Organizing Committee is doing its best to prepare for a successful program and looks forward to meeting many colleagues and friends from around the world. There is much to gain from the sharing of ideas and experiences in a collective effort to find solutions to new challenges.

## SPONSORS OF THE CONFERENC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52nd IFLA General Conference  
Japanese National Committee for IFLA  
Japan Library Associatio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ational Diet Library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 JAPAN ORGANIZING COMMITTEE

### Chairperson

Michio Nagai President, Japan Library Association

### Vice-Chairpersons

Yoichi Maeda President, National Council of Public Libraries

Yasushi Sakai President, Japan School Library Association

Hiroshi Nagano Deputy Librarian, National Diet Library

### Executive Committee

Chairperson Tokutaro Takahashi

Secretary General Hitoshi Kurihara

### Program Subcommittee

Chairperson Madoko Kon

#### Program Division Officers

General Research Libraries	Hiroshi Ueno
Special Libraries	Toshio Sasaki
Library Serving the General Public	Yoshihiro Fukagawa & Setsuko Koga
Bibliographic Control	Hiroshi Tanabe
Collections and Services	Azusa Tanaka
Management and Technology	Kimio Hosono
Education and Research	Nobutaka Sakurai
Regional Activities	Madoko Kon

Public Relations Subcommittee  
Chairperson Azusa Tanaka

Convention Site Management Subcommittee  
Chairperson Tomohiko Sano

Accommodation and Registration  
Subcommittee  
Chairperson Yoshihiro Fukagawa

Exhibits Subcommittee  
Chairperson Tetsuro Sueyoshi

Social Program Subcommittee  
Chairperson Toshio Hamada

Pre-session Seminar Subcommittee  
Chairperson Takayasu Miyakawa

## CONFERENCE INFORMATION

Conference Theme  
"New Horizons of Librarianship Towards the 21st Century"

### Subthemes

- Impact of New Media
- Changes in Library Services
- Changes in Library Users
- Changes in Library Management
-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ians and Information Specialists
- International Accessibility and Cooperation in On-line Information Services
-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Print and Nonprint Media
- Closer Cooper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Library Services in Each Country
- New Philosophy of Librarianship

### Program Summary

August 22, Friday  
Professional Board

August 23, Saturday  
Executive Board  
Coordinating Boards  
Reception for IFLA Officials (by invitation only)

August 24, Sunday  
Standing Committees  
IFLA Orientation  
Exhibits Opening

August 25, Monday  
Division Meetings  
Opening Ceremony  
Plenary Session I  
Reception

August 26, Tuesday  
Section and Round Table Meetings

August 27, Wednesday  
Section and Round Table Meetings  
Japan Night

August 28, Thursday  
Coordinating Boards and Standing Committees  
Tours (half day/all day)

August 29, Friday  
Open Forum  
Plenary Session II  
Closing Ceremony

### Availability of Papers

Copies of the conference papers will be available free of charge in each meeting place and at the Document Distribution Center, Aoyama Gakuin University.

### Simultaneous Translation

Simultaneous translation service will be available in the official languages of IFLA (English, French, German and Russian) and in Japanese. This service is available for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open forums, and several divisional and sectional meetings held during the week.

### Exhibits

A number of exhibits will be displayed to demonstrate the current developments in the fields of publishing, computers, technical equipments, and library materials and services. The exhibits will be located at Aoyama Gakuin University and will be on view from August 24, Sunday through August 27, Wednesday.

##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 Reception

On August 25, Monday evening, a reception for all the participants and registered accompanying persons will be held.

### Japan Night

On August 27, Wednesday evening, traditional Japanese performing arts will be presented at the Nihon Seinenkan Hall.

## Tours

On August 28, Thursday, several tours are planned. There will be a day-long excursion, a morning tour,

and an afternoon tour, each with a combination of professional and recreational elements. Tours for accompanying persons will also be provided.

## REGISTRATION FEE

The registration fee is ¥42,000 per person and ¥30,000 per accompanying person. The fee provides for admit-

tance into all meetings, receptions, exhibits, tours, and copies of all papers presented.

## ACCOMMODATIONS

Hotel accommodations are available to participants. The following rates per night for rooms with bath are listed in Japanese yen.

Room prices	Twin	Single
Category A (deluxe)	23,000 28,500	17,500 25,000
Category B	21,000 23,000	15,000 19,000
Category C	15,000 17,000	11,000 13,000
Category D	7,500 12,000	7,000 8,000

\*Room charges do not include meals.

\*A 10% tax and a 10% service charge will be added to the bill when checking out.

## GENERAL INFORMATION

### City of the Conference

Tokyo is the capital of Japan with a population of nearly twelve million. It is also the country'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The Tokyo-Narita International Airport carries direct flights to and from all major cities of the world.

### Conference Sites

Aoyama Gakuin University is the conference site where most of the events will take place. The opening ceremony and first plenary session will be held at the National Theatre of Japan. The open forum, second plenary session, and closing ceremony will be held at the Nihon Seinenkan Hall.

### Passports and Visas

A participant must have a valid passport with a visa for entry into Japan. Please contact the Japanese Embassy or Consulate in your country for information about visas.

### Climate

In late August the weather in Tokyo is usually warm, humid, and sunny. Temperature ranges from 23°C (73°F) to 30°C (86°F) with an average humidity level of 75%.

All conference rooms and hotels are air-conditioned.

### Travel Arrangement

Japan Travel Bureau, Inc. (JTB) has been appointed as the official travel agent for the conference. JTB will handle all travel arrangements, including hotel accommodations, sightseeing tours, excursions, etc.

Japan Travel Bureau, Inc.  
Foreign Tourist Division  
Convention Center (Ref. CD 8-7401-86)  
1-13-1, Nihombashi, Chuo-ku  
Tokyo 103, Japan  
Phone : 03-276-7885  
Telex : J24418  
Cable : TOURIST Tokyo

### Official Carrier

Japan Air Lines (JAL) has been appointed as the official carrier. Every possible convenience for your travel will be provided. Please contact your nearest JAL office for information.

Japan Air Lines Co., Ltd.  
Vice President's Office, the Americas  
JAL Bldg., 655 Fifth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U. S. A.  
Phone : 212.310.1403

Japan Air Lines Co., Ltd.  
Vice President's Office, Europe, Africa & Middle East  
12 Great Marlborough Street  
London W1V 1DE, England  
Phone : 01-629-9244

## SECRETARIAT

More detailed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in the Final Announcement to be circulated around February 1986.

Secretariat  
Organizing Committee of the 52nd IFLA General Conference

c/o Japan Library Association  
1-10, Taishido 1-chome, Setagaya-ku  
Tokyo 154, JAPAN  
Phone :03-410-6411. 03-421-7588  
Telex : 2223585 ICS J



## 52nd General Conference-Tokyo 1986

第52回IFLA東京大会198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52nd General Conference, 24-29 August 1986, Tokyo, Japan.

### CONFERENCE REQUEST CARD

(Please type or print.)

Send further information on the 52nd Conference.

I intend to participate.

Mr.

Name:  Ms.

\_\_\_\_\_ Last

\_\_\_\_\_ First

\_\_\_\_\_ Middle

Institution/Organization: \_\_\_\_\_

Mailing Address:  Office  Home

\_\_\_\_\_  
\_\_\_\_\_  
\_\_\_\_\_  
(Please return this card by Dec. 31, 1985)

標目에 관한 論議도 있었다.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였던 논점은 표목을 알파벳으로 표시하고 통합가능성을 실현하려는 시도였다. 그리하여 각국은 자국의 로마字表記法을 연구하고 적어도 한·중·일 3국이 통일화 하는문제(각국의 표준을 준용하여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툴(tool)의 편성을 의미한다)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중국측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또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중국어는 자국어로 표기하는 것보다 간편하여 검색에도 불편이 없다. 한국어나 일본어는 각각 한글과 「가나文字」로 표기하여 배열의 대상으로 삼는다. MARC인 경우는 KEY가 되는 배열은 자국어로 하고, 「가나文字」(또는 일본의 경우에는 한글)를 副次的인 배열어로 삼아 검색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크게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알파벳으로 변환하는 문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提出된 문제들을 앞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더욱 심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선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이상의 전진은 없었던 것이다. 국제간의 회합이 새삼 하나의 결론에 도달되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 5. 展 望

87年은 第3次大會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를 권고하고, 아스파社會文化센터로 하여금 그 財政的 支援을 계속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87년에는 日本의 國家레벨의 어떤

圖書館 또는 團體에서 주관하여 모처럼 시작된 아시아지역의 도서관인의 모임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스파측으로부터 계속되는 지원만이 약속된 채 차후 개최단체나 주최자의 결정은 제1차 대회시에는 그랬듯이 내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차기 회의의 개최를 위하여서는 열성적인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하리라 생각한다.

이번 會議에서 委員會를 설치하는 제안은 구체적인 것이긴 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다. 우선 위원회의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委員은 각국에서 2人씩 선출하여 각기 통고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인 事務部署가 決定되지 않았다. 잠정적으로 第2次會議를 主斡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이 역할을 代行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도 간단하게 처리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 2차會議時에 많은 문제들을 보아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일단 의결된 사항인 이상 실무적인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만이 분명할 따름이다.

끝으로 이번 회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고통은 역시 言語의 장벽을 넘는 일이다. 수 많은 도서관인의 상호응점을 발견하고, 각국간의 이해를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소수의 인원만이 차지하고 만다면, 그 성과는 반감하고 만다. 따라서 동시 통역이 필요하다. 그 경비의 고하를 막론하고, 동시통역을 전제로 한 모임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된다.

또 한 가지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연이든 의도된 것이든 간에, 한 기관에서 즉 아스파사회문화센터에서 국제적인 도서관인의 회의를 지원하여 주고 있다

는 사실은 우리 전체의 성장과 정진을 위한 고무적인 사업이며, 이를 귀중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토록 많은 文化團體나 財團이 있건만 정보의 원천을 다루

는 우리의 문제를 수용하는 곳이 없었다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한국 뿐만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모든 나라의 도서관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 未納金を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協會는 財政自立이 마련되지 못한 채 다만 여러 會員들이 負擔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어려움을 깊이 理解하시어 未納된 團體會費와 個人會費 그리고 出版物代金を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면 대단히 感謝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꾸준한 지도와 편달로 성장한  
폐사는 항상 여러분의 편익에 도움이  
되고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쿠폰 대행기관
- 단행본 및 학술잡지
- 구미서적 수입판매

과 학 서 적 썬 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21번지 광화문사서함333호

전화 (723) 6719 (725) 0934